



2012 평신도 정책 포럼

한국 감리교회 **평신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일시 : 2012년 3월 16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종교교회 2층 소예배실
- 주최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2012 평신도 정책 포럼

한국 감리교회 평신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주제강연

‘한국 감리교회 평신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4

김영복 목사(갈릴리교회 담임)

발 제

교회 기능 중심으로

1. 선교 : 이규화 장로(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21
2. 교육 : 한재룡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27
3. 봉사 : 김경훈 권사(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운영부회장) 32
4. 평신도의 역할 : 문 익 장로(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36



진행 : 박은애 부장(사회평신도국 평신도부)

조용한 기도

찬 송 620장 다함께

1.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2.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3.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후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 도 이규화 장로(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인 사 말 선철규 부장(사회평신도국총무직무대리)

주제강연 (2:10~3:00) 김영복 목사(갈릴리교회 담임)

- 발 제 (3:10~4:10)
1. 이규화 장로(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2. 한재룡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3. 김경훈 권사(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 운영부회장)
 4. 문 익 장로(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질의응답 (4:10~5:00)

축 도 김영복 목사(갈릴리교회 담임)

저녁 식사 [식당 '경희궁 뷔페']



사순절기를 맞이하여 고난 받고 부활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평신도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한국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피 값으로 세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함에도 지금 감리회의 혼란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감리회의 정상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 이 혼란이 막을 내리고 정상화되어 한국 감리교회의 위상을 드높이리라 믿습니다.

옛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

이 뜻은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한듯하지만, 결국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리교회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내 자신이 ‘수신’을 게을리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 감리교회 평신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평신도 포럼’을 시작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감리교회 평신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앞으로 평신도들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평신도운동 활성화와 감리회 발전을 위해 귀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회평신도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평신도 포럼이오니 귀한 의견 주시면 평신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또 주제강연과 발제로 수고해주실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2. 3. 16

사회평신도국 총무직무대리 선철규

한국 감리교 평신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김영복¹⁾ 목사
갈릴리교회 담임



I. 들어가는 말

오늘 우리는 한국 감리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자리에 와있다. 한국 감리교회사에 있어서 전국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신도 정책 포럼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감리교 평신도의 저력이고, 이 저력이 한국 감리교회와 한국 사회를 새롭게 성화시켜 나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강연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로, 감리교 평신도의 시각에서 자랑스러웠던 초기 한국 감리교회(1885~1935)의 역사를 반추할 것이다. 둘째로, 현재의 한국 감리교회의 현실과 평신도의 정체성에 관하여 짧게 성찰할 것이다. 셋째로, 희망을 낳는 한국 감리교 평신도의 미래적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역은 본 강연이후 평신도 발제자들에게 의해서 잘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제시될 것이다. 본 작은 강연이 한국 감리교 평신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종교학석사, MA/ 철학박사, Ph.D), 연세대학교 교수 및 교목, 한국대학선교학회 학술부장 및 편집위원 역임, 현 서울연회 도봉지방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II. 몸말

1. 자랑스러운 초기 한국 감리교 평신도들(1885~1935²⁾)

초기 한국 감리교 선교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회 선교와 교회 선교가 바로 그것이다. 교회를 설립하는 일보다 먼저 병원을 세워 환자를 치유하고, 학교를 세워 사람을 키우고, 나아가서 민족과 민중을 계몽하며, 소외된 백성을 돌보는 일을 우선으로 전개했다. 이것은 초기 한국 감리교의 선교적 특징 중의 하나였다.

A. 사회 선교와 자랑스러운 감리교 평신도

1) 의료 선교와 감리교 평신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로서 의료 선교와 학원 선교는 복음의 불모지인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초기 한국의 의료선교와 학원선교의 문을 연 사람들은 본래 미감리회에 신실한 감리교 평신도였던, 두 사람의 스크랜톤(Scranton)이었다. 한 사람은 윌리엄 스크랜톤(William B. Scranton, 1856~1922)이고,³⁾ 또 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톤(Mary F. Scranton, 1832~1909)이다. 윌리엄 스크랜톤은 1878년에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의과 대학에 입학해서 1882년에 의사가 되었다. 병원을 개업하고,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루리 암즈(Loulie Wyeth Arms)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어머니의 권유로 한국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할 것을 결심한다.⁴⁾ 윌리엄 스크랜톤은 1885년 5월 30일 인천에 도착한 후 곧 일본에 체류 중인 부인과 딸, 그리고 어머니를 인천으로 데어올 수 있게 했다.

2) 남북감리교회가 통합하여 조직된 기독교조선감리회의 첫 번째 교회적 행사는 바로 '조선 감리교회 50주년 기념사업'이었다. 『조선일보』는 1934년 2월 6일자 사설에서 "조선 감리교회 50주년"을 이렇게 소개했다. "조선 감리교회는 6월 24일로써 포교 50주년 기념을 맞이하게 되었다. 회고하건대 매클레이 박사 부부가 미국 감리교 선교국의 임명을 맡아가지고 주재지 동경을 떠나서 조선 제물포에 상륙한 것은 지금부터 50년 전인 1884년 6월 24일이였다.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교육 및 의료사업에 대한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은 동년 7월3일이였다. 그리하여 선교사 아펜젤러 씨와 그 일행이 뒤를 이어 조선에 들어올 길을 열었다. 차제를 당하여 우리 민족은 전 민족적으로 감리교 사업의 혜택이 많은 것을 느끼는 동시에 아울러 충심으로 이 기념을 축하하는 바이다."

3) 선교를 결심한 이후, 윌리엄 스크랜톤은 1884년 12월 4일 선교부 책임자인 파울러 감독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는다.

4) 스크랜톤의 부인은 당시의 남편의 결심을 이렇게 기술하였다. "초여름, 스크랜톤 박사가 심한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그때 아이까지 심하게 앓고 있어 남편을 돌볼 틈이 없었고 어머니가 그를 간호하였습니다. 남편이 회복된 후 우리는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내게 놀라지 말라고 미리 당부하면서 자신은 중앙 아프리카를 제외한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나가 헌신하시로 결심했다고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혀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던 날 결심한 것 중의 하나는 무슨 일에 있어서나 남편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만 것처럼 고귀한 이상을 추구하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Within the Gate*, ed. by Charles Sauer, The Korea Methodist News Service, Seoul, 1934, pp. 27.

윌리엄 스크랜튼의 꿈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민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었기에, 그는 잠시 광혜원에서 알렌을 도와 사역하다가 곧 사퇴하고 최초의 서구식 사립 의료원인 정동병원을 1886년 6월15일 정식으로 개원한다. 광혜원에 오는 환자들이 높은 관리나 양반계층이라면, 정동병원의 환자들은 주로 가난한 서민층들이었다. 스크랜튼의 보고에 의하면, “제일 불쌍한 계층”에 속한 극빈자들이었다.⁵⁾ 그가 병원을 시작한 지 불과 8개월만에 무려 522명의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다. 그의 의술에 감동을 받은 고종황제는 정동병원을 “시(施)병원”이라 칭했다.⁶⁾

시병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성전용병원으로 보구여관과 동대문부인병원이 개원하게 되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인 보구여관에서 자랑스러운 감리교 평신도인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Esther Kim Pak, 1879~1910)가 탄생된다. 에스터는 그녀의 세례명이다. 그녀의 본명은 김점동(Esther kim pak, 朴愛施德)이다. 서울 정동의 가난한 선비인 김홍택과 연안 이 씨 슬하 딸만 넷인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그녀가 10세 무렵 정동에서는 미국 선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그녀의 아버지 김홍택도 미감리회 초대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의 집에서 잡무를 보고 있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다. 자신의 이름을 갖지 못했고, 바깥 출입이 통제되었고,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이화학당을 세우고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여자들이들을 교육하던 스크랜튼 부인이 그녀의 아버지를 설득해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그녀는 영어와 산수 등 일반과목과 함께 주기도문, 찬송, 기도 등을 배우면서 점차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그녀는 이화학당에 들어가면서 정신과 영혼의 변화를 겪게 된다.⁷⁾

그녀는 당시 이화학당의 네 번째 학생이었는데, 그녀의 재능이 뛰어나서 교장이었던 메리 스크랜튼 대부인이 그녀를 보구여관에 통역관으로 추천한다. 이로 인해서 에스터는 보구여관의 여의사로 내한한 로제타 셔우드(Dr. Rosetta Sherwood)의 통역을 맡게 된다. 통역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갖게된다.⁸⁾ 그녀는 그곳에서 셔우드가 개설한 의학반에서 의학을

5) 스크랜튼은 1886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술하였다. “우리가 상대해서 일한 사람들은 거의가 극빈자들이었으며, 종종 버림받은 자들도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 몸의 상태가 도저히 일할 수없는 형편이었으므로 그들이 치료받는 동안의 생활비 전체를 우리가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유동식,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 1』, KMC, 2005, p. 58. 본 책은 앞으로 한감역¹⁾으로 약칭될 것이다.

6) “시병원”이란 인술을 베푼다는 뜻과 함께 스크랜튼의 한국 이름인 시란돈(施蘭敦)의 시를 딴 것이다.

7) 이화학당 시절에 에스터는 매우 실존적 신앙체험을 하게된다. 1888년 여름밤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쳤다. 기숙사 방에서 두려움에 떨던 에스터는 선교사들이 들려주었던 노아 홍수 이야기를 생각해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동료 학생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던 것이다. 기도가 끝나자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에스터는 벼락에 놀라 성직을 다짐했던 ‘루터’ 처럼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그 헌신은 1890년 보구여관에서 셔우드의 통역을 하게 되면서 ‘의사’라는 직업으로 구체화 된다.

8) 어느 날 구순구개열, 흔히 언청이라고 부르는 병에 걸린 한 아이가 병원에 들어오게 된다. 불치병으로만 알았던 병을 한 순간의 수술로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녀는 의술의 힘에 큰 감동을 받았다. 자신도 훌륭한 의사가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자하는 결심을 하게 된다.

공부하기 시작한다.⁹⁾ 셔우드(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라 ‘로제타 홀’로 불림)의 도움으로 박유산이란 청년과 결혼한 후에, 그녀는 도미하여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Woman's Medical College of Baltimore-현재의 Johns Hopkins)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900년 6월 24살의 나이로 서양의학을 공부한 한국 최초의 여성의학박사 학위를 받는다.¹⁰⁾

학위 후에 에스더는 미국에서 보장된 화려한 생활도 뒤로 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고국에 돌아온 에스더는 이미 한국에 들어와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던 로제타 홀 여사와 조우한다. 6년 전에는 그녀의 조수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동역자로 힘을 합쳤다. 에스더는 이후 10년 동안 의사와 교육자로 힘껏 봉사하였다. 에스더는 자신이 통역자로 드나들었던 여성전문병원인 서울의 보구여관의 책임을 맡게된다. 감리교 평신도 여성으로서 한국인 여의사가 한국 여성을 진료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또 그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순교한 홀 의사의 뜻을 기념해 지은 평양 기흥병원과 황해도, 평안도 일대를 순회하며 무료 진료 사역을 펼친다. 평양에 광혜여원의 건물을 신축하고, 한국 최초의 간호원 양성소 개설에도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로제타 홀 선교사를 도와 평양맹아학교와 전도 부인을 양성하는 여자성경학원 교수로도 활약한다. 이런 공로로 1909년 경희궁에서 고종황제가 임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부인회 주최의 ‘해외유학 여성 환영회’에서 은장(銀章)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에 3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던 에스더는 1910년 4월 13일,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에 결핵까지 걸려 34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한국의 빛나는 별이 되어 세상을 떠난다. 평양 선교를 떠나며 에스더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던 로제타 홀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데는 어느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고 의연히 대답했다. 그녀의 삶이 곧 그녀의 신앙의 답이 되었던 것이다.

2006년 한국과학기술부는 볼티모어여자의과대학을 최연소로 입학해 졸업한 박에스더의 공을 기려 과학기술 선현 분야에 박에스더를 선정,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했다. 보구여관의 맥을 잇는 이화여대 의과대학 동창회에서는 2008년부터 ‘자랑스러운 이화인 박에스더 賞’을 제정, 의사로 박에스더의 정신을 잇는 동문 여의사 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2) 학원 선교와 감리교 평신도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 목사와 메리 스크랜튼(Mary F.

9) 1890년 10월에 내한한 여의사 셔우드(Rosetta Sherwood)는 “여성을 위한 의료사업은 여성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어 걸고 의료사역을 전개하였다. 당시 보구여관 내에는 일본인 한 명, 한국인 4명으로 된 의학 훈련반이 있었다. 에스더는 그곳에서 의학을 공부를 시작하였다. 김유광, 『초기 한국 감리교 의료선교에 관한 연구(1885-1935)』,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1, p. 15.

10) 그러나 당시 에스더는 기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급성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6년 동안이나 막 노동을 하며 아내의 학비와 생활비를 뒷바라지 하였던 남편이 불과 학위 수여 20일 전에 세상을 떠났다.

Scranton, 1832~1909) 대부인이 1885년 7월에 서울에 도착한다. 그녀가 바로 윌리엄스크랜튼의 어머니이다. 아들이 병석에서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결심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아들과 함께 감리교 평신도 여자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결심하였다.¹¹⁾ 아펜젤러는 한국 최초의 서구식 학교 건물인 배재학당을 설립하는 반면, 메리 스크랜튼은 1885년 10월에 정동에 학교와 사택부지로 초가집 열 아홉 채와 옆에 붙은 빈 터를 사들였다.¹²⁾ 그 다음해 2월부터 그곳에 “여학당과 사택”(Girl's School and Home)을 짓기 시작했다. 당시 학생수는 4명이었고, 1887년 1월에는 7명으로 늘었다. 초기 학생들의 대부분은 비천한 신분계층의 출신이거나 불우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었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의 효시가 된 것이다. 감리교 평신도 선교사인 메리 스크랜튼의 교육적 헌신에 의해서, 잠들어 있던 한국 사회의 여성들이 최초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던 자랑스러운 감리교 평신도 사역자였던 박에스터와 한국 근대 여성의 선각자인 김활란 박사같은 인물이 바로 이화학당의 출신인 것이다.

김활란 박사는 이화학당의 초·중·고등과를 거쳐 1918년에 대학과를 졸업, 우리 나라 최초의 여성대학 졸업생이 되었다. 그 뒤 이화학당의 교사로 임명되었으며, 재직중 한국감리교 감독이었던 웰치(Welch, H.)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미국 오하이오 웨슬레안대학에 편입, 철학·교육학·문학 등을 공부하였다. 1924년 대학을 졸업한 뒤 그 해 9월 보스턴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뒤 귀국하여 1925년 6월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 및 학감에 취임하였다. 1930년 다시 도미하여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고, 1931년 10월 감리교 평신도 여성으로서 우리 나라 여성 최초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은 『한국의 부흥을 위한 농촌교육(Rural Education for the Regeneration of Korea)』이었다.

1931년 6월에는 덴마크인의 경제부흥에 관한 『정말인(丁抹人)의 경제부흥론』을 저술하여, 당시 한국사회와 유사하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침체되었던 덴마크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는지를 알렸다. 책의 결론에서 우리 민족에게 전민족의 정신쇄신, 민중교육의 중요성, 협동조합운동의 발흥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나라에 협동조합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 1928년 미국 감리교회 총회에 참석하였을 때, 당시 미국에는 불경기가 심하여 외국 선교사업을 축소시키기로 하고, 우리 나라에 주재하던 주교를 없애고 다른 나라의 주교가 이를 겸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긴급발언권을 얻어 감동적인 연설을 함으로써 총회가 방금 가결한 것을 번복, 우리 나라에 독립된 주교를 계속 주재하도록 만들었다. 이 때부터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그녀는 일생 동안 모든

11) 당시 미감리교회 내에는 “여성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자”(Extend the Gospel to Women by Women)는 표어를 내걸고 해외여성교회가 조직되었다. 1884년 한국에 선교의 문이 열리자 어머니와 아들을 함께 한국 선교를 위하여 한 사람은 교육자로 한 사람은 의사로 파송하게 된 것이다. 이덕주, “스크랜튼 가족의 선교 활동,” 『나라와 교회를 빛낸 이들』, 상동감리교회, 1988, pp.5~22 참조.

12) M. F. Scranton, “Woman's Work i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Vol. 3 No.1, 1896, p.339.

국제회의에서 우리 민족을 대표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23년에는 김필례(金弼禮)·유각경(兪珏卿)과 더불어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를 창설하였고, 1924년 세계대회에 가입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25년에는 새롭게 눈뜨기 시작한 여성의 발언을 발표하기 위하여 ‘여성이여 어서 앞으로 나가자!’라는 구호를 내세운 잡지 『여론』을 처음으로 발간하였다. 1926년 4월 26일,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이 죽었을 때 이화학당 학감으로 있으면서 이화의 전학생에게 깃광목으로 상복을 해입히고 창덕궁 앞에서 망곡(望哭)을 하게 하였다. 또한 당시의 인습적 제약과 구속을 타파하기 위하여 솔선 수범하여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하였다. 1926년 학감에서부터 시작, 부교장을 거쳐 1939년 아펜젤러(Appenzeller, H.G.)의 추천을 받아 이화학여자전문학교와 이화보육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김활란 박사는 일제의 민족탄압이 더욱 극심해진 민족항일 말기에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지하로 잠적하였으나, 최후의 일각까지 신념대로 행동하겠다는 각오로 농촌개발운동에 더한층 정열을 쏟았다. 농촌계몽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축산을 통한 부업과 식생활에서의 영양섭취의 장려, 문맹퇴치 등에 중점을 두었다. 농한기에는 부녀자들을 모아 각 지방에서 강습회를 열기도 하였다. 심훈(沈熏)이 쓴 『상록수』의 여주인공 채영신의 실재인물이라 할 수 있는 최용신(崔容信)으로 하여금 수원 샘골에 농촌아동교육시설을 갖추고 농촌운동을 전개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¹³⁾

3) 민족·민중 계몽 운동과 감리교 평신도

초기 한국 감리교는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민족의 앞날을 비추어주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특별히 감리교 평신도들의 리더십은 탁월하였으며, 민족의 가슴에 길이 남을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었다.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만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국의 선각자 윤치호(尹致昊, 1864~1945)선생이다. 감리교 평신도로서 윤치호 선생은 김옥균등과 같은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조선의 개화를 위해 노력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청나라 상하이로 유학, 중서서원에서 3년동안 공부하며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한국인

13) 광복 후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구성된 교육심의회의 위원으로 교육이념분과에 참여하였고, 그보다 먼저 구성된 한국교육위원회에서는 여자교육 부분을 맡아 여성교육의 이념 확립에 공헌하였다. 또한 YWCA를 재건하고, 한국여학사회를 창설하여 초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6·25전쟁 중에는 전시내각의 공보처장을 지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코리아타임스 The Korea Times』라는 영자신문을 발행하여 국민홍보외교활동을 하였다. 이 밖에도 국민홍보외교동맹을 조직하여 참전국과의 민간외교 및 외국참전병들의 위문 등 전시국가의 여성운동을 지도하였다. 1961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를 정년퇴직하고 명예총장 겸 재단이사장으로 봉직하였다. 1965년 9월에는 대한민국 순회대사로 임명되어 1970년 죽을 때까지 활동하였으며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1963년에는 교육 부문의 대한민국장을 수상하였고, 필리핀에서 주는 막사이사이상의 공의 부문상과 미국 감리교회에서 주는 다락방상을 수상하였으며, 1970년 대한민국일등수교훈장이 추서되었다. 임종 전 “인간의 생명이란 불멸하여 육체가 없어지더라도 죽은 사람이 아니므로 장례식 대신 화려한 승리의 길로 환송해주는 환송예배를 해주기 바란다.”는 부탁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장례식을 음악회로 대신하게 되었다.

최초의 남감리교회 신자가 된다. 선교사 A.J 앨런의 주선으로 미국으로 가서 밴더빌트대학과 에모리 대학에서 5년간 머물면서 영어, 신학, 인문사회 과학 등을 공부하였다.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¹⁴⁾ 미국 유학생활동을 마치고 상해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에모리대학 총장 캔들러(W.A. Candler)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다. “내가 모은 돈 200불을 당신께 보내오니 이 돈을 기초로 삼아서 조선에도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여 내가 받은 교육과 같은 교육을 우리 동포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만일 내가 상해로 가서 속히 조선으로 들어가면 내가 학교를 세우도록 할 것이오. 만일 나보다 먼저 조선에 가는 이가 있거든 그에게 부탁하여 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되, 5년이 지나도록 세우지 못하게 되거든 그 돈을 마음대로 처리하여도 좋습니다.”¹⁵⁾

윤치호 선생은 한국이 복음으로 개화되기를 강하게 열망하였던 인물이었다. 자신의 일생의 사명을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리고 내 일생은 나의 의무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내 사명이란 곧 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다.”¹⁶⁾ 사실 남감리교회의 한국 선교는 그의 간절한 노력과 제안의 결실이었다. 캔들러는 윤치호선생이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해달라고 간청한 일을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 달라고 청한 것에 비유하며 감동을 받았다. 유동식 박사는 윤치호 선생이 없는 남감리교회의 한국 선교는 상상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¹⁷⁾

조국을 떠난지 10년만인 1895년 2월 3일에 귀국하자마자 윤치호선생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차원에서 민족·민중 계몽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1897년 서재필, 이상재등과 같이 독립협회에 가입한다. 그 다음에 2월에는 부회장에 선출되고, 같은 해 8월에는 독립협회 회장과 독립신문 사장에 취임하여 자주국권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또한 윤치호 선생은 서재필의 뒤를 이어 민족, 민주, 독립,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초의 기독교도들이 중심이 된 만민공동회 운동을 주도해 나갔다.¹⁸⁾ 잠시 지방으로 추방된 이후 1904년에 감옥에서 석방된 이상재, 남궁억 등 독립협회

14) 당시의 한국 실상을 그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수백만의 생명이 자유로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곳,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포부가 실현되지 못하며 애국심이 발휘되지 못하는 곳, 지옥 같은 전제정치가 몇 세대에 걸쳐 굴종과 빈곤과 무지를 낳게 하고 이를 부추기는 곳, 사람들이 삶 속에 죽어가고,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곳, 도덕적, 물질적 부패와 더러움이 해마다 수천의 생명을 앗아가는 곳.” 윤치호, 『일기』, 3권, p. 182, 1893년 10월 7일.

15) 유동식, *한갑역*1, p.131. 재인용.

16) 윤치호, 『일기』, 1권, p. 410, 1889년 12월 14일.

17) 유동식, *한갑역*1, p.122. 감리교 평신도로서 그는 미국 남감리교회의 한국 선교의 문을 열게 하였던 인물이다. 유동식 박사는 그의 공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윤치호는 한국 남감리교회를 형성하게 하고 또한 육성하는 데 크게 힘을 기울인 내국인 선교사라 해도 좋을 것이다. 윤치호가 없는 한국의 남감리교회를 생각할 수 없다.” 종교교회는 1900년 4월 15일 미국 남감리교회 선교사 캠벨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이다. 종교 교회 내에 윤치호 선생의 역사 자료 기념관이 있다. 한국인 최초의 미국 남감리교회 교인으로서 좌옹(佐翁) 윤치호 선생의 제안으로 남감리교회 선교부가 동양 선교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핸드릭스(E.R. Hendrix)와 남감리교 최초의 선교사 리드(C.F. Reid, 1849~1915) 박사가 1895년 10월 13일 제물포항에 선교답사차 도착한다.

18) 당시 이 운동에 이승만, 전덕기 등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주로 배화학당과 이화학당의 선생들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것이 기독교계통 학교의 사회 정치 참여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동지들과 함께 미국에 있을 때부터 관여하였던 YMCA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YMCA총무를 거쳐 조선 YMCA 연합회 회장직을 맡게 된다. 그는 또한 최초의 찬송가집인 『찬미가』를 발행하였는데, 그곳에 자신이 직접 작사한 애국가 세 편을 수록했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이다.¹⁹⁾

둘째로, 인간 상록수 최용신(崔容信: 1909~1935)이다. 소설가 심훈의 대표작인 『상록수』의 여주인공 채영신은 실제인물 감리교 평신도 여성 농촌 계몽 운동가 최용신의 모델이다. 최용신은 루시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4월 서울 감리교 여자협성신학교에 입학하여 황에스터 교수의 농촌운동에 감화를 받는다. 문맹자가 대다수인 농민들을 방임해두면 가혹한 일제의 탄압에서 민족의식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겨레의 살 길은 농촌계몽에 있다”고 확신하였다. 신학교를 중퇴한 그녀는 대한 YWCA 연합회의 파송으로 1931년 경기도 안산 천곡교회 사역자로 부임하여 3년 동안 농촌계몽 운동을 벌였다.

그녀는 농촌 부녀자들과 함께 밭을 벗고 논에 들어가 모를 심고 김을 매며 밭을 매면서 구슬땀을 같이 흘렸고 밤이면 야학을 열고 아동들과 한글·산수·재봉·수예 등을 가르쳤다. ‘이제라도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시켜 나라를 찾고 잘 사는 국가를 만들자’고 호소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마땅한 교육 공간이 없는 것을 절감하고 1년 3개월 만에 강습소를 허가받아 신축한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조국을 찾는 독립정신과 신앙을 불어넣어 주었다. 처음에는 40여명의 아이들에게 한글, 산수, 재봉, 수예, 성경 및 노래를 가르쳤고 밤에는 부녀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1933년 8월에 천곡학원 인가를 받게 된다. 그러자 아이들은 불과 3개월 만에 110명으로 늘어났다. 천곡에서의 그녀의 활동은 천곡학원의 교장 겸 교사로서, 마을 주부들의 주부회 지도자로서, 마을 청년회의 후원자로, 천곡교회 평신도 사역자로서 천곡의 온 마을에 그녀의 손길과 마음이 아니 거친 데가 없었다.

1934년 봄 최용신은 사회사업에 대한 공부를 위해서 일본 고베여자신학교 사회사업학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누적된 과로와 영양실조로 천곡으로 다시 돌아와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다가 장중첩증(창자가 창자 속으로 꼬여 들어가는 병)으로 25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 “내가 죽은 후에는 학원이 잘 보이는 곳에 묻어주세요”라고 하였던 그녀의 유언에 따라 학원과 교회가 마주 보이는 곳에 그녀의 시신을 안장하였다.²⁰⁾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그녀가 남긴 상록수 정신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 최용신이 사망하자, 천곡마을 사람들은 그를 사회장으로 1,000여명의 조문객의 애도 속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작가 심훈이 이를 소재로 그 유명한 『상록수』라는 농촌소설을 집필한 것이다.

19)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사상사』, 한국감리교회사 총서, 1993, p. 88.

20) 윤춘병, 『한국 감리교 수난 백년사』,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1988, p.126.

셋째로, 한국의 잔 다크 유관순(柳寬順, 1902~1920) 열사이다.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삶은 그녀의 아버지 유증권 성도의 영향이 크다. 감리교 평신도로서 유증권 성도는 1910년 한일 합방이 되자 한국의 주권을 찾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사재 5백 석을 털어 마을에 흥호학교를 세운다. 그러나 흥호학교는 1915년 이후 일본인의 방해로 폐교하게 되자 유증권 성도는 구국의 길을 기독교에서 찾았다. 조인원, 유빈기 등 마을의 유지들과 손잡고 교회를 중심으로 민중 계몽 운동을 전개한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1일 서울 이화학당 고등과에 재학하는 딸 유관순을 통해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다.²¹⁾

당시 유관순은 이화학당 고등과 학생으로 재학중이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학생들과 함께 가두시위를 벌였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자 만세시위를 지휘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내려왔다. 아버지 유증권과 함께 독립 만세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천안·연기(燕岐)·청주(淸州)·진천(鎭川) 등지의 학교와 교회 등을 방문하여 만세운동을 협의하고 음력 3월 1일(4월2일) 아우내(竝川) 장터에서 3,000여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며 시위를 주도하였다. 유관순은 출동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었고, 아버지 유증권과 어머니 이소제 여사는 일본 헌병에게 그 자리에서 피살되었다. 유관순은 공주 감사국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영명학교(永明學校)의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끌려온 오빠 유관옥(寬玉)을 만났다. 그후 복심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 중 고문에 의한 방광과열로 옥사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1996년 5월 그녀에게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명예졸업장을 추서하였다.

온 가족이 신실한 감리교 평신도들이었던 유관순 가족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두 피를 바친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유관순의 아버지 유증권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다. 충청남도는 유관순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2년에 유관순상을 제정했다. 자랑스러운 감리교 평신도들이 아닐 수 없다.²²⁾

B. 교회 선교와 자랑스러운 감리교 평신도

1) 영적 대각성 운동과 감리교 평신도

초기 한국 감리교회는 사회 선교 뿐만 아니라, 교회 선교까지 주도하였다. 1903년에서 1907년

21)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측 대표 16인 중에 감리교 대표가 9명이나 되었다. 이필주, 박동완, 오화영, 최성모, 신석구, 신흥식, 박희도, 김창준, 정춘수.

22) 그들 외에도 많은 감리교 평신도들이 3·1독립만세 운동으로 순직하였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감리교 평신도와 교역자-평신도: 유관순 유증권 이소제 강태성 부인김씨 김덕용 김정현 안경순 안관순 안명순 안종국 안종린 안무순 안봉순 안상순 안유순 안종락 안종화 안종환 안종후 안진순 안필순 안경칠 홍순자 홍원식 조종대/교역자: 박석훈 전우균. 윤춘병, 『한국 감리교 수난 백년사』, 감리교 신학대학출판부, 1988, p. 229.

사이에는 일본의 치밀하게 계획된 침략 행위 아래서 국권이 상실해 가는 망국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국내외 감리교 평신도들은 한쪽에서는 사회참여를 통한 구국 운동을 전개하였고, 또 한편에서는 망국의 시련과 혼란의 와중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민중들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한다. 한국 교회사에 한 획을 그었던 엄청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다.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영적 대각성 운동은 전국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였다.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과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 복음이 힘차게 증거 되기 시작했고, 가장 완악한 사람들도 통회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교회는 이 운동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칭하였다. 마치 초대교회 오순절의 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처럼,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 운동을 가능케 하였던 중심에, 감리교 평신도 의료인 하디(Robert Alexander Hardie, 1865-1949)와 그의 아내 켈리 선교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는 사실 4년 전인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디는 캐나다 출신으로 토론토대학 의과를 졸업한 평신도 의료선교사이다. 하디는 1887년 켈리(Matilda Kelly)와 결혼하였으며, 1890년 9월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와서 잠시 제중원에서 일하다가, 1892년 11월 원산에서 의료선교활동을 시작하여 1898년 캐나다 대학 선교회와의 계약기간(8년)이 끝나자, 미국 남감리회 선교회에 소속한다.²³⁾ 그는 의료사역보다도 복음 사역에 더욱 역점을 두고 사역을 전개하였다. 1935년 은퇴하여 귀국할 때 까지 45년간의 그의 헌신적인 사역은 한국 교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원산에 파송을 받고 강원도 일대를 선교 여행하던 중 지경터에 이르러서 그곳에 지경터교회를 세운다. 그러나 생각만큼 사역의 결실이 없었다. 사역의 실패와 좌절로 절망하던 중에 그 자신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에 남감리교회 중국선교회의 일원인 화이트 양(Miss Mary Cutler White)이 한국을 방문하여 원산에 머물게 된다.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사경회를 제안했다. 당시 집회에서 하디는 내적 회심을 체험한다. “...나는 내 실패의 원인이 성령체험의 부족에 있다는 것과, 아무리 풍성한 사업이라도 그분의 임재가 없다면 헛수고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²⁴⁾ 하디의 성령체험이 원산 전역의 영적 부흥을 일구었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 전국적으로 교

23) 하디 선교사를 목사로 칭하는 교회사 자료들이 있다. 그러나 그가 언제 어디서 신학을 공부하고,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다. 단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자료는 그는 토론토대학 의과를 졸업한 평신도 의료 선교사라는 기록이다. 당시 선교사는 그 자체로 성직자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료에 의하면, 1909.9~1910.8월에 광희문 감리교회 제7대 사역자로 시무한 적이 있다. 선교 초기 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교회와 교육과 의료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지금의 평신도들이 본 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24)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남감리교회 한국선교회의록), 1903, p.26.

파를 초월해서 한국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디의 영향으로 1905년 9월 15일 감리교와 장로교의 선교사들은 교육사업을 연합으로하기로 하고, 서울에서 “한국복음주의선교회연합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 in Korea)를 조직하였다. 1906년부터 초교파적 연합부흥회가 전개되었는데, 8월에 평양에서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들이 하디를 초청하여 1주일간 사경회를 개최하였다. 놀라운 체험을 한 장로교 선교사들은 그 평양의 사경회를 겨울까지 계속 진행하였다. 드디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2주간의 사경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낮에는 장로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저녁에는 감리교와 장로회 연합으로 평양에 있는 전체 교회 연합으로 집회가 진행되었다. 바로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된 것이다. 스톡스는 이 집회의 특징을 “웨슬리적 부흥회의 특별한 현현”이라고 칭했다.²⁵⁾

2006년 5월 24일, 존 웨슬리 회심 268주년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양화진에 그의 기념비를 세워 그의 업적을 기렸다. 기념비 명은 “영적 대각성운동 기념비”이다. 기념비 돌판은 이런 내용을 새기고 있다. “감리교 선교사 하디는 1903년 원산부흥운동의 위대한 불씨로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이제 100주년을 맞아 다시 영적 대각성의 불길을 사모하고, 그가 이 땅에 남기고 간 사랑하는 두 딸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이비를 세워 역사에 뜻을 기리고자 한다.” 당시 보건 위생 등 열악한 환경으로 1893년 그의 큰딸이 출생했지만 그 다음날 사망했고, 작은 딸 역시 1903년에 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다. 사랑하는 두 딸을 한국 땅에 묻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바쳤던 하디와 그의 아내 켈리의 삶은 이 땅의 감리교 평신도들의 삶에 영원한 귀감이 된 것이다.

2) 복음 운동과 평신도 여성

복음이 전래되던 당시의 한국 여성들은 철저히 유교적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살고 있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기본적 인권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자신의 이름 석자도 없이 남성에 의존된 존재로 살아갔던 여성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여성의 존재의 자리를 바꿔주었다. 남성의 동반자로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어머니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시켜 주었다. 특별히 세례는 한 독립된 인격적 존재로서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갖게 해주었다. 실로 혁명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²⁶⁾

복음이 잠자던 한국 여성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지도자이며, 한국 개신교 개척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사람들은 바로 “전도부인(Bible woman)”이었다. 이들은 국내외 복

25) 유동식, *한감역1*, p.264.

26) Noble, “What the Bible has done in Christian Korea Homes,” *The Korean Mission Field*, Jan 1915, 11-12.

음 사역에 선봉에 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놀라운 영적 지도력을 발휘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는 ‘여성사 연구팀’을 구성하여 1999년에 『한국교회 전도부인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은 기독교 선교초기부터 해방 전까지 신문과 잡지, 회의록, 교단 역사, 노회역사, 해외 선교부의 회의록 보고서등을 총망라하여 전도부인들의 활동상을 수록하였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해방 전까지 전도부인의 총 수는 1,251명이나 되었다. 교단별로는 감리교가 717명, 장로교 209명, 성결교 138명, 교단미상 151명이었다. 단연 감리교 전도부인의 숫자가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타교단과는 달리 감리교회는 선교 초부터 독립적인 여성선교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미감리교회는 “여성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자”(Extend the Gospel to Women by Women)는 표어를 내걸고 해외여성교회를 조직했다. 한국의 여성 사역을 위해서 개신교 최초로 평신도 감리교 여성 선교사 메리 스크랜트(Mary F. Scranton)부인을 한국에 파송한 것이다. 그녀가 한국 최초의 사립 여성대학인 이화학당을 설립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초기 전도부인의 역사는 곧 감리교 평신도 여성 지도자의 역사와도 같은 것이다. 전도부인은 지금의 여성 전도사의 기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당시로서는 성직자라는 개념보다는 평신도 여성 복음 지도자라는 개념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그녀들의 역할은 실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지대하였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문화적,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고, 외부 출입이 금지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한국 여성들(특히 양반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 또한 그녀들은 하루 종일 계속되는 가사노동으로 외부출입을 할 수 없었던 한국 여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녀들은 ‘내외법’ 아래 엄격한 성별분리를 중시하는 유교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²⁷⁾ 여자 선교사 무즈는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전도부인 김새디(Sadie Kim)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어 전도부인 새디 김(Sadie Kim)은 그해에 481명을 방문했고, 239권의 책을 팔았다. 그녀는 교회로 329권의 책을 팔았다. 그녀는 교회로 32명의 새신자들을 인도했고, 1명의 배교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였다. 소책자들을 부리고 부흥회 때 수많은 가정을 교회로 초대했으며, 가을과 봄에는 학원(institute)에서 공부를 했다.”²⁸⁾

당시 전도부인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성을 계몽하고 자신들 스스로 선각자의 삶을 사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미 고찰하였던 박에스터같은 인물도 일종의 전도부인출신이었다. 전도부인은 국내의 전도 사업뿐 아니라, 해외선교까지 감당하는 평신도 여성 선교사 역할까지 감당하였다. 최나오미가 바로 그 중에 한 여성이다. 남감리교회는 시베리아 선교를 위해서 최초의 한인 감리교 평신도 여성 최나오미를 선교사로 파송한다. 나오미(Naomi)는 그

27) 허연숙, “초기 감리교회 전도부인의 활동과 역할(1885~1935),”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21.

28) 이우정, 『한국기독교 여성 100년의 발자취』, (서울: 민중사, 1989), 53.

녀의 세례명이다. 그녀는 1900년 10월부터 전도부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 서울·원산·개성·춘천등 4개 지방 여선교회 대표 82명이 종교교회에서 조선남감리교회 여선교회를 조직하게 된다. 그곳에서 최나오미는 초대 회장이 된다.

복음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지닌 최나오미는 회장으로서는 술선수범하여 시베리아 선교사로 자원한다. 1923년 10월에 두만강을 건너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망명한 한인들이 집단촌을 이루고 있는 신한촌에 도착한다. 광활한 만주·시베리아 지역을 순회하며 사역을 하였다. 교회와 가정들을 방문하고, 예배와 기도회와 사경회를 인도하고, 특별히 각 지방에 여선교회를 조직하고, 사경회와 강연회,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1925년 그의 파송 기한이 되는 해의 선교 보고에 의하면, 무려 여선교회가 13개소, 회원 109명으로 까지 성장하였다. 만주·시베리아 교민들의 간청으로 선교 파송기한을 1년 연기하여 1926년 5월에 귀국하게 되었다. 그만큼 그녀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던 것이다. 그녀의 3년간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그녀가 떠날 때 만주·시베리아 각처에 여선교회가 설립되었고, 그녀가 감당했던 일들을 10명의 전도부인들이 그녀의 뒤를 이어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⁹⁾

초기 전도부인은 단순히 선교사의 조력자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스스로 주도적인 선교사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한국 사회의 여성 운동의 기틀을 만들어 가는데 주저하지 않았다.³⁰⁾ 자랑스러운 감리교 평신도 여성 복음 운동은 이들에게 의해서 준비되어졌던 것이다.

2. 부끄러운 한국 감리교회와 감리교 평신도

A.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와 상관성의 위기(Relevance crisis)

세계적인 카톨릭 신학자 한스 쿡(Hans Kung)은 그의 명저 『교회(The Church)』 안에서 현대 교회의 위기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기독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The Gospel of Jesus Christ)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아니라, 교회의 법과 제도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 이것이야 말로,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라고 생각한다. 세속화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 감리교회의 위기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회와 교단을 움직이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데 오히려 극히 교회의 법과 제도가 더 강력한 힘을 드러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복음의

29) 이덕주, 『한국감리교 여선교회 역사』, (서울: 여선교회전국연합회, 1991).

30) 전도부인들의 활약은 애국 애족의 사회 참여에 까지 이른다. 3·1운동 이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지도 아래, <애국 부인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전도부인 김세외가 선출되었고, 홍병원의 전도부인 홍유례가 재정총무를 맡아서 실무를 책임졌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본질처럼 붙잡고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감리교의 현실이다. 이것은 감리교회가 처음의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름뿐인 교회로 남을까봐 두려워하였던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John Wesley)의 마지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매우 불행한 시국인 것이다.

이런 정체성의 위기는 언제나 동시에 세상과의 영적 책무를 감당해야하는 상관성의 위기(Relevance crisis)를 가져온다. 내적 성화를 이루지 못한 교회가 사회 성화를 위해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염려와 조롱과 근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국민일보 2011년 2월 11일 금요일자 신문에, 모대학 총장으로 계신 어느 감리교 평신도분이 이런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감리교 평신도로 산다는 것> 부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울부짖던 교단 지도자들이 이래도 되는가”였다.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렇다.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느끼기에는 감리교 교단의 지도층 속에서는 세속화 경향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기류는 교회의 급속한 성장, 조직의 비대화와 맞물려 조직의 동맥경화증이 심해졌고, 지도부와 평신도 집단의 소통이 결여되면서 지도부의 안하무인격인 상호 쟁투와 반목, 그리고 교권 쟁탈이 격렬하게 전개돼 왔다.”

소수 교권주의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에 의해서 한국 감리교회와 한국 감리교단 전체가 할퀴를 당하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 때가 자랑스러웠던 초기 한국 감리교 평신도 운동이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들 안에서부터 새롭게 전개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리교회와 감리교단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를 기대해 본다.

B. 감리교 평신도³¹⁾ : 객체에서 주체로

어느 진보적인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예수도 평신도”였다는 것이다. 당시의 제도화된 교육과 교단에 의해서 잘 훈련된 안수 받은 성직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를 따라 다녔던 수많은 무리들과 12제자와 70문도 역시 그랬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에 의해서 전개되지 않았다. 오히려 초대교회의 역사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거듭난 평신도 신앙인들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31) 평신도 운동의 역사는 기독교사에 있어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소위 교회 내에서 ‘평신도 운동’이라는 것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와서부터이다. 한국의 경우는 1960년에 와서야 ‘평신도 신학’ ‘평신도 운동’이란 말들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실 평신도 사역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존재했다. 한국 감리교 교단 본부 안에 평신도국이 만들어 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교육국은 미국 감리교회보다도 먼저인 1930년대에 설립되었고, 선교국은 1950년대 후반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평신도국은 1980년도 초쯤에 설립되었다.

16세기 타락한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였던 마틴 루터의 외침이 사제중심의 교회제도를 오랜 동안 주장해오던 카톨릭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카톨릭 내부에서 평신도들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성찰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에 관한 가장 유권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역사적인 문헌인 『평신도 그리스도인』³²⁾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언한 권고문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신자들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평신도들은 교회 생활의 일선에서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인간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리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특별히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더욱 분명한 의식을 지녀야 한다. 이들이 바로 교회이다”(9항)

“평신도가 바로 교회이다”는 선언은 교회론의 새 지평을 여는 참으로 엄청난 선언이 아닐 수 없다.³³⁾ 정체성의 위기와 상관성의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국 감리교회를 누가 새롭게 세워 나갈 수 있을까? 이제 희망은 평신도에게 있다고 본다. 초기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서 선각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그 자랑스러웠던 역사를 감리교 평신도들이 다시금 새롭게 재현해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감리교 평신도가 곧 감리교회이고, 감리교단이며,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라는 존재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 변혁의 주체로 일어서 주기를 바란다.

3. 희망을 낳는 한국 감리교의 미래적 과제 : 위기에서 기회로

A. 내적 성화(Inner Holiness)의 과제 : 정체성의 위기를 넘어

개신교 교회론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쉘라이어마허(Friedrich Ernst Daniel Schleiermacher)는 그의 명저 『Der Christliche Glaube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가변적 요소(mutable

32) 이 문헌은 1987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바티칸에서 개최된 세계주교대의회(시노드) 제7차 후속 문헌이다. 전부 64개 항목으로 서론 및 5개 장, 맺음말(호소와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33) 평신도를 가르키는 헬라어 라이코스(laikos)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laos)라는 말이다. 이 말은 어떤 특정 그룹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광의적 의미에서(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평신도라는 말은 본래 선택 받은 자, 성도, 제자, 혹은 하나님의 몸인 믿는 자의 공동체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다. 그 말 안에는 평신도와 교역자 사이를 갈라놓는 그 어떤 기준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평신도를 이렇게 정의한다. “그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독특한 개성이다.” John Stott, *One People*, p. 28.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주후 3세기경부터 교회는 급격히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교회 조직 안에 교직에 종사하는 성직자와 그룹과 그 외의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성직자와 일반 성도를 구별하는 공식적인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성직자와 구별된 존재로서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런 구분은 전혀 성서에 근거 없는 구분은 아니다. 구약시대에 레위지파에 해당하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분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구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존재의 ‘구별’은 아니다. 사역의 기능적 차이의 구분일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과제 앞에 놓여 있는 존재인 것이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묵상해보면, 사실 사도행전은 ‘평신도 행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인가? 바로 평신도 스테반집사였다. 그의 순교의 피가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 평신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주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세상은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를 본다. 하나님은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elements)와 불가변적 요소(Immutable elements)를 구분하였다. 기독교 교회는 교회의 불가변적 요소를 붙잡을 때 비로소 기독교 교회 공동체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쉘라이어마허가 주장한 교회의 불가변적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적 인격성”(Archetypal Personhood)과 “구원적 활동성”(Redemptive Activity)이다. 토마스 아켄피스(Thomas a Kempis)의 명저 『그리스도를 본받아(The Imitation of Christ)』가 기독교 영성의 고전적 교재가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존 웨슬리가 강조하였던 내적 성화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매한 인격과 그의 구원적 삶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바로 우리의 내적인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실현하는 영성의 경지인 것이다. 위에서 성찰했던 초기 한국 감리교의 평신도들의 삶은 바로 이 내적 성화의 결과로 나타난 삶의 모습들이었다. 주님이 말씀해주신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내적 성화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요15:5,6)³⁴⁾

B. 외적 성화(Outer Holiness)의 과제 : 상관성의 위기를 넘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반대되는 말로 ‘노블레스 멜라디’(Noblesse Malady)라는 말이 있다. 귀족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사회적 지위를 다 누리면서도 귀족의 신분에 어울리는 헌신과 기여가 없는 이기적인 귀족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 존재의 신분이 상승된 사람들이다. 땅의 시민인과 동시에 하늘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다.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교회 밖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산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가 아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평신도)의 공동체이다.

평신도는 곧 세상이다. 왜냐하면 평신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곧 세상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복판에서 자신의 내적 성화를 기반으로, 외적 성화 즉 사회 성화(social sanctification)를 이루어 가야한다. 초기 한국 감리교 평신도들이 자랑스러웠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 앞에서 철저히 자신들의 신앙을 사회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철저히 사회화, 역사화하였던 인물들이었다.

『자본주의 4.0』의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는 “한국은 자본주의 4.0 시대에 새

34) Walter Rauschenbusch는 그의 사회 복음화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개인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화의 삶을 변화와 개혁을 위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보았다.

로운 리더십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바 있다. 그는 자본주의가 자유방임(1.0), 수정 자본주의(2.0), 신자유주의(3.0)를 거쳐 자본주의 4.0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와 기업이 상호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정부 주도의 정책들을 민간 기업들에게 이양한다. 정부는 작아지고, 민간 기업은 기존의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이 시대적 흐름을 영적인 영역에 적용해 보면 이렇다. 교회의 영역에 간혀있는 소수 목회자 중심의 사역구조는 이제 세상 속에 디아스포라(Diaspora)로 살아가는 다수 평신도 중심의 사역구조로 새로운 사역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한국 감리교 평신도들이 세상의 사회 각 분야에서 선각자들의 역할들을 감당할 것을 기대해 본다.

Ⅲ. 나오는 말

한국 근대사의 중심에서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왔던 자랑스러운 초기 감리교 평신도들의 삶의 모습을 성찰해 보았다. 한국 감리교회의 초석을 쌓은 이들이 감리교 평신도 선교사들이요 한국 감리교 평신도 사역자들이었다. 오늘 우리는 극히 일부의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윌리엄 스크랜튼, 매리 스크랜튼, 하디와 그의 아내 켈리, 그리고 두 딸 매리와 마가렛, 그리고 박에스터, 김활란, 윤치호, 최용신, 유관순과 그녀의 가족들, 최나오미와 수많은 전도부인들, 그들의 삶 그 자체가 교회와 사회의 영적이고 사회적인 자정능력이었으며, 변화와 개혁의 진원지였다.

복음주의 4.0시대를 이끌어갈 감리교 평신도들이 있어 한국 감리교회가 희망이 있다. 이제 한국 감리교 평신도들이 아직도 중세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깨워야 할 때이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역사 변혁의 주역들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감리교 평신도가 감리교회이고, 감리교 평신도가 감리교단이며, 감리교 평신도가 한국 사회와 민족의 미래임을 잊지 말자!

평신도선교의 연대와 선교비전 세우기

이규화 장로
여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동해안에서 나오는 물고기 중 물곰이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생기기는 아주 못 생겼는데 이것으로 매운탕이나 지리를 끓여 놓으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던 시절에 이 녀석은 어부들에게 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고기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어획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 물곰의 가격도 하루가 다르게 뛰어 오르고 어느새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존재하였던 것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의미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을 사람들은 ‘재발견’이라 합니다. 19세기에는 여성의 가치가, 20세기에는 어린이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직자와 구별되는 일반 성도를 일컫는 평신도가 교회 성장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받고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평신도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식과 연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거룩한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평신도 조직의 선교 현황과 연대 그리고 선교비전 세우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I. 평신도선교와 중심사역

1. 평신도선교란 무엇일까요?

평신도선교는 선교 활동을 하는 주체가 평신도 또는 평신도 단체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선교와 관련한 언어들을 사용함에 있어 간혹 평신도선교=전문인선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단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인선교를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가 가진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선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평신도가 전문인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평신도선교=전문인선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평신도선교사의 사역

많은 이들이 평신도선교사를 자비량선교사로 이해합니다. 물론 초기선교과정에서 목회자중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해 온 까닭에 ‘선교사=목회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 들어서는 많은 평신도 선교사가 헌신하여 선교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까닭에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평신도선교사들의 중심사역을 보면 재정과 물질, 기도 등의 후방지원을 하는 협력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대상의 선교교육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NGO 등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평신도 사역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른 장단기 선교로 구분하기도 하고 거주형태에 따라 거주와 비거주선교로 부르는 등 다양하게 세분화 되었고, 선교활동에 참가하는 인원도 방식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사역의 유형을 살펴보면 ①신학교사역을 통한 교회개척 ②현지인선교사 양육 및 훈련 ③의료사역 ④교육사업 ⑤농업사역 ⑥구제 및 봉사 사역 ⑦이미용사역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II. 평신도 단체의 해외선교 활동

1. 여선교회 선교의 발자취

1) 해외선교

여선교회의 선교는 여선교회 출발과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여선교회는 1918년 원산지방 여선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비를 모금했습니다. 1923년에는 최나오미를 시베리아에, 1924년 양로우더를 만주에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해외선교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합니다. 1958년에는 볼리비아까지 선교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965년 3월 중부연회가 사라왁과 볼리비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는 본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감리교회 첫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1958년 이미 여선교회가 선교비를 보냈던 곳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들을 근거로 여선교회 선교 역사가 우리 교단의 해외선교를 개척한 역사였다고 감히 자평해 봅니다.

이후 여선교회는 1970년 대대적인 해외선교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사라왁 선교를 계획하고, 현지 선교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선교활동을 전개합니다. 1978년부터는 아시아 여성 선교사 후보생을 한국에 데려다가 교육시킨 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아세아연합신학교(ACTS)와 공동 협의하여 파키스탄 출신 에스더 이나이어트, 인도 출신 세반티 존의 교육비와 훈련비를 부담하였습니다. 1983년에는 방글라데시 현지인 목회자를, 1988년에는 필리핀 모자원에 선교비를, 1989년부터는 방콕신학원 여성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므로 여성 목회자 양성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1984년에는 한경희 선교사를 대만에 보내 중국어를 익히게 하였는데 이는 중국(당시 중공이라 부름)에 대한 선교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988년에 김정림 목사를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파송, 탄자니아 원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와 복음전도를 통한 선교사업을 벌였습니다.

2) 국내선교

국내선교는 감리교회가 없는 지역에 감리교회를 세우는 개척교회 설립에서 출발하였습니다. 1960년대 산업 공업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발전했으며 1970년대 이후 정치 경제 문화적 소외지역인 농어촌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전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소외 지역에서 목회하는 여교역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농어촌지역 여교역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도농여선교회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3) 특수선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업을 ‘특수선교’로 명명하였습니다. 여선교회의 특수선교는 1964년 윤락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자기술양성원과 영등포시립부녀보호소 등에서 선교사들이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선교를 위해 산업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어 여선교회의 선교의식과 내용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초기 전도의식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인권문제와 여성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 관계를 해소하는데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2. 청장년선교회의 웨슬리전도단

청장년회 웨슬리 전도단은 청장년들의 자발적인 선교운동으로 시작해 그 역사가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1990년 5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웨슬리전도학교 제1기 교육을 시작한 이래 23기에 이르기까지 980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었으며, 중국 러시아 등지에 22차례 620여 명을 단기사역으로 현지에 파견하여 선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웨슬리전도단은 전도학교를 통한 실제적 차원의 선교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평신도들의 선교의식을 고양시켰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감리교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현지지도자를 국내의 신학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현지지도자양성의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2002년 시작한 목회학 석사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속적인 웨슬리전도단 활동으로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는 27명에 이릅니다. 최근에서는 필리핀 12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네팔과 타지키스탄 지역으로 선교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에 식량 보내기운동과 여러 활동을 통해 북한 선교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Ⅲ. 연대를 통한 선교비전 세우기

‘연대’의 사전적 의미는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침을 일컫거나 두 사람 이상이 어떤 행위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뭉쳐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연대라 볼 때, 우리 교단의 평신도간의 연대는 걸음마 단계라고 감히 판단해 봅니다. 다시 말해 연대의 단계라 말하기 보다는 협의 단계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감리교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는 평신도 자치 단체는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회이며 이 단체들의 자치활동 또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장로회, 여장로회, 교회학교연합회 등과 같은 평신도 임의단체들 간의 정기적인 만남과 회의를 통해 평신도들의 역량을 강화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심에는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이 그 중심역할을 하면서 연합하는 내용과 교단의 평신도 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부분까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연대를 통한 선교활동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1. 평신도의 연대는 나눔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경제적 의미에서의 나눔 보다는 사업의 나눔과 공유, 정책의 나눔과 공유 그리고 인력, 재능 등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나누어야 합니다.

현재 평신도 단체 간에 행사를 협조하는 차원에서의 광고 후원이나 축하금 같은 형태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는 참으로 칭찬하고 격려하여야 마땅한 일이지만, 이것이 관행이 된다면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 보다는 부담을 주고 자기 살을 깎아먹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건강한 나눔, 서로를 살리고 격려하는 차원의 나눔을 시작해야 합니다.

2. 건강한 교류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평신도 단체 간에 어떠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 봉사, 선교 등에 관한 정책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체의 고유한 역할을 살리며 협력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뜻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교류는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서로 자기 살을 깎아내는, 서로를 힘겹게 하는 교류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3. 선교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현장 지원 네트워크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청장년선교회의 <웨슬리전도단>입니다. 이미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다양한 선교활동을 통해 평신도 선교사를 발굴하여 현장에 파송하고 지원하는 형태와 현지의 목회자 자원을 개발하여 재교육 차원에서 국내의 신학대학과 협력하여 정규교육과정을 개설, 교육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여선교회도 '비전 1120'을 통해 아시아 20개국에 11개 연회가 선교지원을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에는 영화학교와 여학생 전용 기숙사를 건립하여 방글라데시의 여성지도력과 여성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지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성리더를 훈련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비를 모금하고 지원하는 형태의 선교방법은 이미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선교사를 발굴하여 보내기는 하는데, 선교비를 지원하기는 하는데, 선교정책이나 선교현장을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평신도 단체와 선교국이 협력하여 실제적인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이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4. 자비량의 평신도 전문사역자 발굴이 필요합니다.

선교의식을 가진 평신도들은 우수한 선교일꾼들입니다. 전문선교사들이 들어 갈 수 없는 지역 초차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평신도들은 비자문제를 잘 해결하여 들어갈 수 있고, 현지인들과 삶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자비량의 평신도 선교사들과 전문선교사를 이어 줄 수는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해외선교가 질적으로 풍부해질 것입니다.

5. 선교사 쉼터 공유와 지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파송교회 파송교단 파송단체로 돌아와서는 쉽다운 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선교회는 선교사들의 쉼과 재충전을 위해 제주도에 100주년기념연수원을 운영하며, 선교사들에게 쉼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연수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쉼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모으고, 선교사들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6. MK(선교사자녀) 사역자 발굴과 연결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한국감리교회는 네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단입니다. 총 1,184명(전체선교사의 4.9%)의 선교사를 74개국에 파송하며, 선교사자녀는 630명에 이릅니다(선교국 자료에 의하면 현지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는 829명, 파송나라는 66개국, 선교사 자녀는 654명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교사 후원과 후방지원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여선교회에서는 선교사자녀 모국 방문 및 한국 바로알기 문화체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면에서 본다면 선교사 자녀들은 예비선교사로서 언어와 문화적인 갈등의 현지 적응기간 없이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유능한 자원들입니다. 이들에게 모국의 교회와 문화를 바르게 경험케 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양육한다면 무궁한 선교자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불안해합니다.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되는 기독교와 관련한 많은 뉴스들은 우리를 이러한 생각으로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의 때에 기도와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한 단계 성장하였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평신도 단체들이 우리의 내일을 위해 자기검증을 통한 회개와 기도를 통해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가 대립의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목회자 그룹은 성직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자기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평신도들 또한 교회의 거룩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 건강한 연대 활동을 전개하며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더 큰 시각을 가지고 건강한 협력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평신도 지도자의 영성훈련



한재룡 장로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I. 여는 말

우리나라 기독교는 선교 1세기만에 세계교회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성장 해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주춤거리다가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여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현대사회의 다원화와 IT사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활방식의 변화에도 영향이 있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내실 있는 영적인 신앙성장에 치중하지 못하고 양적인 성장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와 하나님말씀공부 등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 그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분명 교회나 평신도지도자들의 영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성장무드 속에서 교회 본래의 사명(예배, 선교, 구제, 친교)을 수행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비상식적인 교회운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확신과 영적인 훈련으로 비전을 주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신도지도자를 복음적이고 체계적인 영성훈련을 시키는 것과 교회의 사명 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감리회는 지난 4년 간 정통성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가 타교단에 비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교회의 영적 성숙과 평신도지도자의 영성훈련을 통한 교회갱신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기독교적인 영성은 무엇이며, 영성훈련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II. 영성의 개념 정의

1. 일반적인 영성

일반적으로 영성(Spirituality)이란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정신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영성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해가 아닌 삶의 본질에 대한 나름대로의 확신에 따라서 사는 삶의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적, 정서적, 의지적 차원이 연속성 속에서 통합된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정신 속에서 자기가 최고의 가치를 둔 정신이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신과의 관계에 따라 영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면 기독교적 영성, 소크라테스의 정신으로 살면 스토아주의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2. 기독교적인 영성

기독교적 영성이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분에게 주 의와 관심을 기울이며 반응하는 모든 활동,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영성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적 인간이해와 가치관이 다른 어떠한 종교나 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영성은 역사상 실제로 살았던 한 분 예수님을 본받는다든 점에서 일반 영성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시며, 살아계신 인격자로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영성을 뛰어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일반영성과 기독교 영성 비교

대체로 일반 영성이 역사적 인격의 정신과 사상과 삶을 본받으려는 인본주의적임에 반하여, 기독교 영성은 역사적 예수의 정신과 삶을 계승하려는 인본주의적 요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추구하는 수직적이요, 하나님 중심의 영성입니다. 일반 영성은 엄격한 자기훈련과 수양을 통하여 자신의 성품을 바꾸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기독교 영성은 우리에게 임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Ⅲ. 평신도지도자의 영성훈련

1. 영성훈련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아무 노력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구축됩니다. 이러한 영성은 교회 존재의 근원이며 성장의 원천이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영성훈련은 “새사람을 만들어 가는 인간적인 교육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드리는, 즉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닮아 가도록 만드는 과정(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치관을 각 개인에게 인격화시킴)”인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훈련은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비움과 채움(emptiness and fullness)의 훈련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조화를 잘 이룰 때 영성형성(Spiritual formation)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2. 영성훈련의 단계와 훈련내용

기독교 영성훈련은 첫째로, 영적각성 조명의 단계(영성생활의 출발점-내적각성), 둘째로, 영성훈련 정화의 단계(비움의 훈련-자아성찰과 금욕적인 수련), 셋째로, 영성형성 완성의 단계(채움의 훈련-예수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로 이루어집니다. 주요훈련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묵상훈련 :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 순종하며, 하나님께 응답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 2) 기도훈련 : 우리를 인간정신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기도는 삶의 창조요, 변화이다. 기독교인들은 기도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 3) 말씀공부훈련 :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며, 마음의 변화,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 말씀공부는 진리를 깨닫는 길이요, 성령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 4) 금식훈련 :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요구가 있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요소를 씻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 5) 순종훈련 :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순종의 훈련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것이다.
- 6) 섬김훈련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참된 섬김은 침묵, 인

내하며, 꾸밈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겸손히 돌보아 주는 것이다.

- 7) 예배훈련 :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창조역사에 동참하는 예식이다.

3. 영성훈련의 방법

1) 교단차원의 영성 훈련

가) 평신도 대학과정은 감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신도 신학을 정립시켜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평신도지도자를 양성한다.

나) 가정예배서 「하늘양식」을 이용한 가정예배를 통해 영성이 형성된다.

2) 각 평신도단체 주관 영성 수련회 및 임원 세미나

가) 주관단체 : 남·여선교회, 장로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나) 개최횟수 : 년 1회

다) 주요내용 : 하나님을 직접 뵈는 예배와 주제 강연, 평신도 지도자의 영적성장을 위한 영성 훈련특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실제 삶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 등이 있다.

3) 각 교회별 영성훈련

가) 성서대학 :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교육한다.

나) 제자훈련 : 12제자 선발 후 성경과 리더십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다) 소그룹의 영성훈련

- 성경읽기, 성경필사, 악기교습을 통한 찬양으로 영적 성숙을 돕는다.

라) 전교인 영성 수련회

- 년 중 2회(여름, 겨울) 전교인을 대상으로 영성을 훈련한다.

마) 속회를 통하여 말씀공부, 선교, 친교 등의 영성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 감리회는 1742년부터 존속되어온 “속회 (Class meeting)”을 통하여 부흥, 발전해 왔다.

- 속회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잘 알게 해주며, 가정을 중심해 모여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교하도록 도와 준다.

- 속회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기회를 마련 해주고, 속도원들의 사회적 양심을 일깨워 주므로 바로 알고 바로 행동할 수 있으며, 행동한 뒤에는 책임을 지도록

- 가르친다.
- 직업에 대한 기독교적 소명감을 가지도록 하여 어려운 개인문제에 봉착했을때 용기를 얻도록 하며 항상 신앙으로 이길 수 있도록 가르친다.

4) 개 교회의 목장교회(일명 Cell)조직 도입의 문제점

- 침례회교단에서 시작된 목장교회(일명 Cell)조직을 일부 감리교회가 도입 운영함으로 남·여·청장년선교회의 조직과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남·여·청장년 선교회가 황성화되기 위해서는 감리교회의 전통조직인 속회가 운영되어야 할것이다.

IV. 맺음 말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평신도 지도자의 영성이 충만할 때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지속적, 질적, 양적으로 부흥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선교 2세기를 맞이했지만 지금 한국 감리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서서히 정체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다양하고 양질의 달란트를 소유한 평신도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함과 동시에 영성훈련에 교회적, 개인적, 교단적으로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은 평신도지도자의 ‘영적각성’ 없이는 교회의 부흥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교단이나 교회 차원에서는 타락해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복음적인 다양한 영성훈련 프로그램 등 개발에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평신도지도자들은 하나님 사역을 위해 부름 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개인적인 영성 성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각종 영성 수련회에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적무장에 만전을 기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 받는 평신도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년선교회 활성화 방안



김경훈 권사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운영부회장

I. 청장년 현주소

청장년선교회 ‘조직’은 <교리와 장정> 제12편 청장년선교회 규칙 제2장 제4조에 “이회는 본 교회에 소속된 만 30세부터 만 45세 이하의 청장년으로 조직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리교 청장년의 활동 시기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늦은 40대(각 연회별 지방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 지방을 포함하여 연회에서의 활동을 포함하게 되면 만 46세에 전국 임원으로 청장년을 벗어나 남선교회로 이동하게 되며, 남선교회에서의 46세에서 50세까지의 연령군은 남선교회의 폭넓은 연령 분포로 볼 때 거의 참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의 만 45~50세 세대는 과거 성령시대를 거치며 자기희생과 헌신으로 무장된 잘 훈련 받은 세대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바탕으로 지방조직과 연회조직을 다년간 섬기며 사역의 전문성까지 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청장년연령 제한에 묶여 그 능력과 헌신이 사장 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남짓한 청장년 활동만으로 청장년의 새로운 역사와 변화를 요구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일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 사회의 보편적 흐름은 수명연장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어 청년인구의 실업과 늦은 결혼으로 30대 후반은 물론 40대의 미혼자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근본축이 흔들리는 위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국 청년회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청장년선교회에 청년회의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감리교의 가까운 미래는 청장년이라 정의할 때, 청장년의 문제는 청장년만의 문제가 아닌 남선교회 차원을 넘어 감리교의 절대적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분 \ 년도	1990년	2010년	2040년
한국인 평균수명	70세	80세	100세
평균결혼연령(초혼)	27세	32세	35세
남선교회 : 청장년 비율	1 : 0.8	1 : 0.4	1 : 0.2

청장년의 인적자원은 현재 고갈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직업군으로는 보편적인 직장인으로 주일 이외의 활동제약, 개인 자영업 또는 본인사업장 등 제한적 사유로 본교회의 사역(극소수)까지는 그런대로 감당합니다. 여기에는 감리교가 전통적으로 웨슬리의 후예로 연합과 협력의 일치를 지향함에도 각 교회에서는 소수인 청장년의 인적자원 유출로 인식하며 지방을 넘어 연회와 전국의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에는 지원이 인색한 실정입니다. 연합과 협력 사업이 무색해지며 갈수록 그 설자리가 축소되는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체교회 청장년조직이 무너지는 동시에 지방조직의 와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 없는 연회, 또는 전국조직의 상징성만 부각되며 감리교의 내일을 기약 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현재의 훈련 받은 청장년이 세대 간의 리더십을 세워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인적 공간을 만들도록 감리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II. 청장년의 고군분투

소수의 인원으로 각종 봉사활동으로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청장년의 노력은 눈물겹습니다. 청장년선교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상당수는 출석 교회 교사와 각 부서 총무로 섬김과 동시에 지방과 연회 또는 전국 청장년회 사역을 동시에 감당해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장년은 기술자원봉사활동으로 대대적인 ‘사랑의 집짓기’를 포함한 ‘쌀 나누기’, ‘연탄 나누기’를 통해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장년선교회는 각 연회별로 인력과 재정, 기술자원 등을 회원들의 자발적 봉사로 나누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교회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교회 밖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립식 주택 지

어주기, 도배장판 등의 보수, 독거노인 이불세탁 봉사 등등.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사랑 전달은 복음 전파와 감리교회 위상을 높이는 귀한 통로입니다.

더불어 각 연회의 찬양제를 통해 세계 각지를 향한 선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각 연회 산하의 지방찬양제를 통해서도 미자립교회와 지방 현안에 대한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장년선교회는 기능중심적인 사역이 아닌 은혜중심의 사역으로 각 연회에서는 화요기도회를 통해 영적각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조직의 활성화와 청장년 연령의 신축적인 논의가 늦어진다면 많은 사역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Ⅲ. 청장년선교회는 투 트랙의 접근 필요

청장년은 봉사중심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활성화의 첫 단계는 인력의 확충과 직결됩니다.

활성화라는 부분은 인력의 확충과 사업이라는 투 트랙의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인력의 확충과 교육

지방조직의 편성이 최우선과제이며 개체교회를 돌아보며 청장년조직의 편성 등을 통해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개체교회 담임자들의 역할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방 감리사와 사회평신도부 총무의 지원과 협력으로 지방청장년 인프라구축이 최선의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지방이 청장년 조직을 세웠다면 연회차원에서는 실무적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연회본부와 청장년선교회연회연합회가 관련 사역에 보다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 실질적인 인재육성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연합회와 개체교회에 신실하고 충직한 사명자로 키워야 합니다.

2. 선교와 봉사

선교지를 향한 직접적인 지원과 교회 건축 등으로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함은 물론 청장년 자체적으로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원봉사는 보다 많은 헌신된 인원들로 채워도록 많은 공유와 나눔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IV. 결론

청장년의 연령제한에 대한 신축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이 훈련된 일꾼들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되고 이 섬김이 50대 연착륙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사역과 헌신이 남선교회에서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청장년선교회 지방활성화는 시대의 대세이면서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되었습니다. 서울연회의 비전교회 집중지원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를 보면서, 청장년에 대한 정책수립의 유무가 감리교의 미래와 직결되며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뜻과 사명이 있음을 엄숙히 고백합니다.

평신도 사역의 시대적 요청



문 억 장로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

I. 들어가는 말

이 땅에 감리교회가 들어온 지 12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은 민족의 근대화와 수난의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지도자로서 목회자들과 더불어 나라와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키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감리교회는 안타깝게도 목회자 중심의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로 전락하여 교회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폐쇄적이고 노후된 교회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날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특성화되는 오늘의 사회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천을 보는 눈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도덕성과 신앙인으로서의 구별된 기준과 삶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나 성직자는 물론 크리스천들의 작은 실수나 탈선에 대하여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차 없이 비난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상대적인 개념에서 평신도를 본다면 평신도는 교회 구성의 9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부흥이나 선교·교육·봉사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역할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 아닌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야 하며, 이것이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가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평신도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평신도들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 만큼 책임도 커진다는 말입니다.

평신도가 바로 서느냐 바로서지 못하느냐에 따라 교회에 대한 평가와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외적 부흥과 성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섬기지 않으면 사회와 불신자들로부터 외면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더불어 사는 평신도들의 사명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II. 시대의 변천과 감리교회 평신도 사역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돌아보면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며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 해결의 중심에 평신도들이 있었고 그들의 역할과 노력이 컸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기 감리교회 평신도 사역자들과 우리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몇 분 평신도 지도자들의 활동을 통해 오늘날 당면한 평신도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초기 감리교회 평신도 사역자들

1839년 4월 1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브리스톨에서 첫 번째 야외 설교를 시작한 이후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회심자들이 각기 자기 지역에서 신도회(Society)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도회 조직이 커지고 부흥함에 따라 속회(Class), 반회(Band), 선발 신도회(Select Society), 참회자(Penitents) 등이 만들어져 운영되었는데 이들 중심에는 언제나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주축인 이들 모임에는 형식적인 틀에 박힌 예배 형태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영적 생활경험을 통하여 죄의 고백과 회개와 간증이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직접 모임에 참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평신도들의 영적지도력이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은혜의 방편들로 훈련되고 양육된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 모임은 더욱 활발하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는 당시 혁명적인 평신도 신학의 실천자로 평신도들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교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전문 사역직을 맡기거나 생활 현장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전도자와 사 랑의 사도들이 되어 살도록 하였습니다.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스스로 세상 속에서 헌신적인 사역을 생활화 하도록 양육해 낸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웨슬리의 평신도 양육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신도가 참여할 수 있는 구 조였습니다. 이런 구조의 회복이야말로 오늘 감리교회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는 초기 감리교 복음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감리교회 실생활에서 영적지도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웨슬리의 평신도 양육과 실천운동은 오늘에 우리가 되살려야 할 평신도들의 영적생활과 생활 의 내용들이라 하겠습니다.(평신도국 발행 2005년 평신도 월례공과 참조)

2. 빛을 남긴 한국의 평신도 지도자들

개화기와 민족 수난기를 거치면서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지도자들의 신앙적 삶과 모습 을 통해 그들이 감리교회에 끼친 영향력과 오늘 우리 감리교회 평신도들이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신앙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남궁억(1863~1936) 독립운동가

1896년 서재필이 주도한 <독립신문>에 참여했고, 독립협회에 수석 총무를 맡았다. 독립협회 시 절 윤치호의 전도로 종교교회에 입적하였으며,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YMCA)가 창설된 이래 열 성회원이 되었고, 그후로 기독교청년회 이사 등으로 활약하면서 YMCA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노 년에는 강원도 홍천에 낙향하여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신앙을 통한 민족교육과 무궁화 심 기 및 보급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을 계몽하는 일에 매진하였다.

• 윤치호(1865~1945) 계몽운동가

서재필, 이상재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국민계몽활동에 힘을 쏟았다. 1887년 세례를 받음으 로 한국인 최초의 남감리교인이 되었으며, 남감리교회 최초의 교회인 고양읍교회 창립에 중추적 인 역할을 하였다. YMCA총무, 회장, 세계주일학교 한국지회 회장,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 전문학교, 이화전문학교 이사과 연희전문학교 교장, 조선체육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신 교육과 기독교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다.

- 김활란(1899~1970) 여성운동가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를 창설했고, 이화여자대학교 초대 총장과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이화학당 교사와 학생 7명으로 “이화7인전도대”를 조직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여성 계몽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기독교 신앙을 통한 여성 계몽운동의 선구자이다.

- 이승만(1875~1965) 건국대통령

독립협회의 간부로 활약하였고, 만민공동회 참여사건으로 투옥되었는데 이곳에서 신앙을 받아 들여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한국의 정치가. 독립운동가, 초대 대통령, 독립협회, 상해 임시정부 등에서 활약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정부 수립 당시 국회 개원식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등 투철한 신앙과 신념을 지닌 민족지도자이다.(2008년 발간 장로총감 참조)

수많은 지도자 중에서 위의 네 분만을 살펴 보았습니다만 이들은 모두 민족지도자이기 전에 훌륭한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를 가진 감리교회의 전통과 자부심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평신도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3. 감리교 평신도들의 위치와 현실

감리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눈은 싸늘합니다. 그만큼 감리교회가 사회와 불신자들에게 실망과 불쾌감을 주었다는 반증입니다. 이러한 배척이나 혐오감은 비단 감리교회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감리교회에 몸담고 있는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평신도들의 위치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는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들을 목회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처럼 생각하여 견제하기도 합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에 매우 소극적인가 하면 평신도 연합활동을 불순하고 쓸데없는 모임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성도들을 현혹하여 자신의 생각과 이익을 위하여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에 동원하여 사용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도 종종 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평신도가 얼마나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하느냐가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가 긴장과 견제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과 동역의 관계로 나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변화의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Ⅲ. 평신도 운동의 방향과 바른 자세

1. 평신도지도자의 리더십 회복

요즈음처럼 지도자의 바른 리더십이 요구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나 조직이나 단체이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국가나 조직의 성패와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다운 목회자, 장로다운 장로가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의 감리교회의 문제도 결국은 올바른 지도자의 정직한 지도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나 돈의 위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직성과 진실성’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강력한 치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법과 불의를 용인하거나 묵인하고 넘어간 지도력의 부재가 호미로 막아야 할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자초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 주신 겸손과 섬김의 영성을 지닌 진정한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 평신도들의 참 모습

오늘 감리교회나 평신도들의 문제도 본질을 망각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보다 예수님이 우선임을 인식한다면, 영광 받아야 할 분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는다 해도 그것이 예수님과 교회를 밟고 얻는 것이라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불신앙적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태도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평신도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성도의 정체성도 같이 변질

되고 말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우리 크리스천 모두가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신 희생과 섬김의 영성을 지켜 나간다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오는 괴리를 좁혀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평신도의 본질과 참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3. 평신도 활동의 지향 과제

평신도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목회자들의 평신도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편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평신도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고 있지만, 반면에 또 많은 분들이 오해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평신도들이 본질을 망각한 채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눈총과 불신을 심어준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평신도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한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들이 사회 속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전문성을 결집하여 활용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평신도 운동의 방향도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해 나가느냐가 관건이요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IV. 평신도 사역의 시대적 요청과 대응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신도가 교회 구성원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의 사역이 교회 사역의 핵심이며, 평신도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고, 평신도들의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의 시대는 교회의 중심이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되어야하고, 이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평신도들의 발언권이 커져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

코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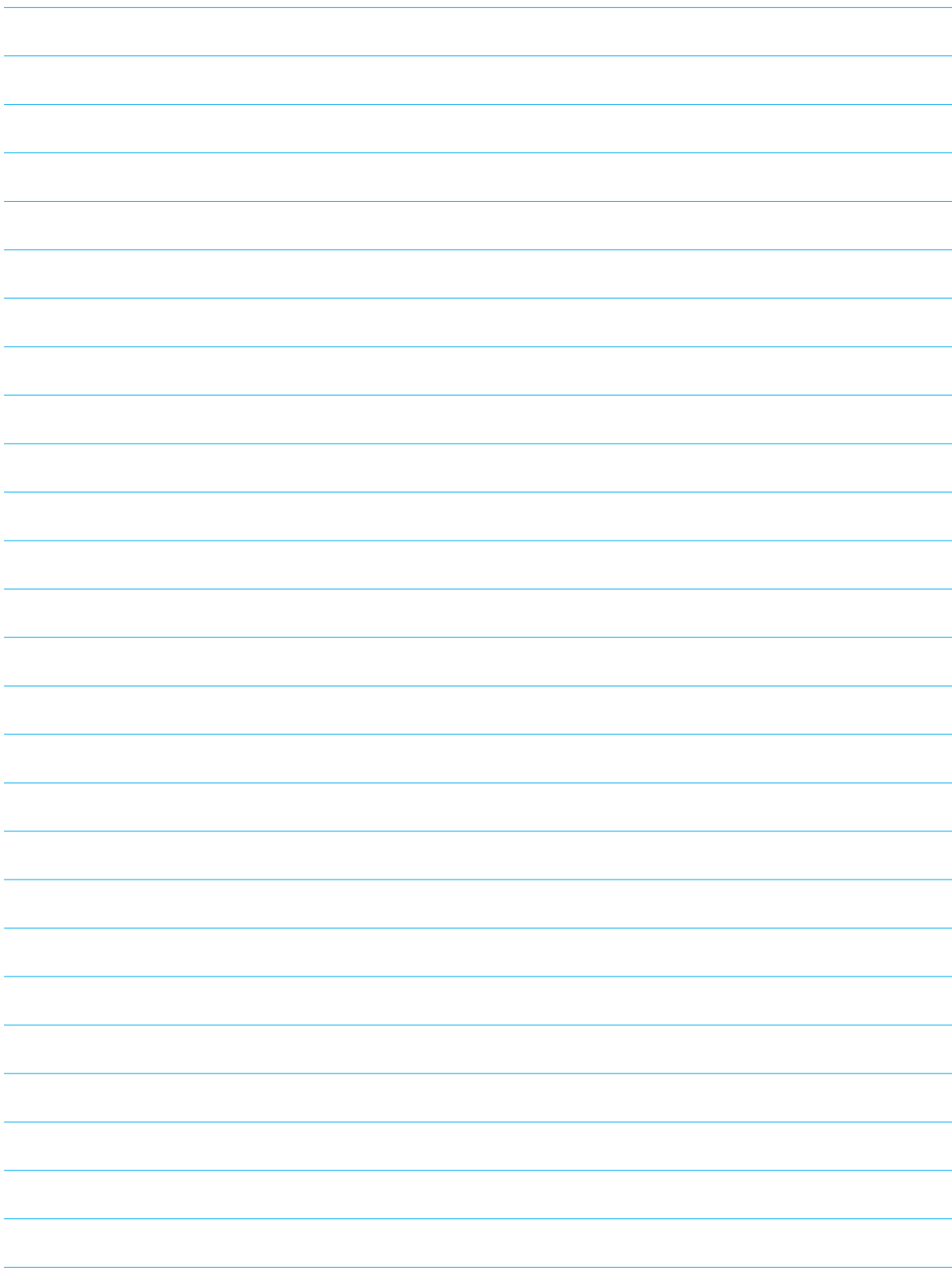
“평신도 시대”라고 하는 의미는 평신도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고 하는 뜻이요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에 더욱 충성하고 적극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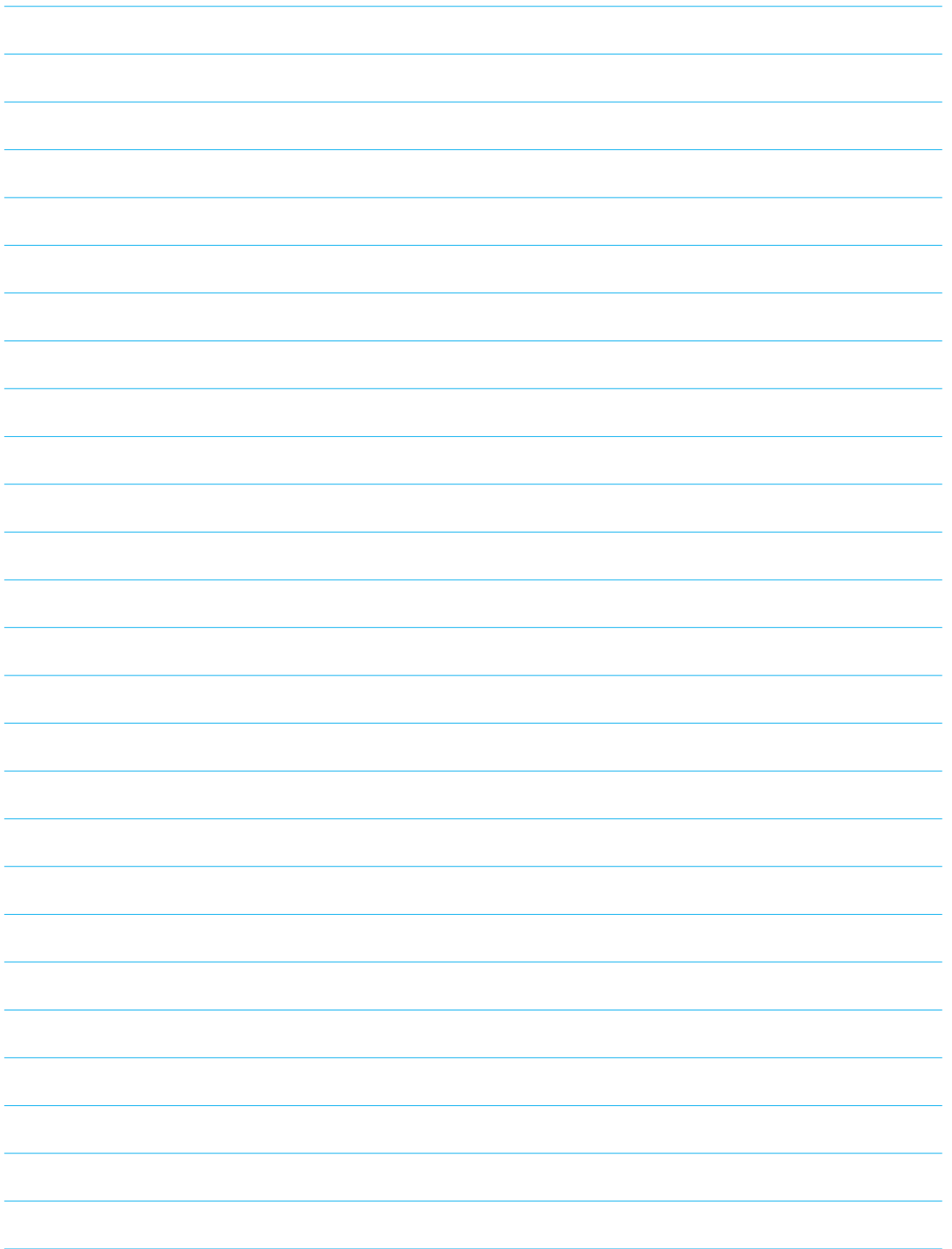
교회가 외형적인 부흥에만 치중하면 어느 순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물결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찬 추악한 인간의 모습만 보이게 됨으로써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도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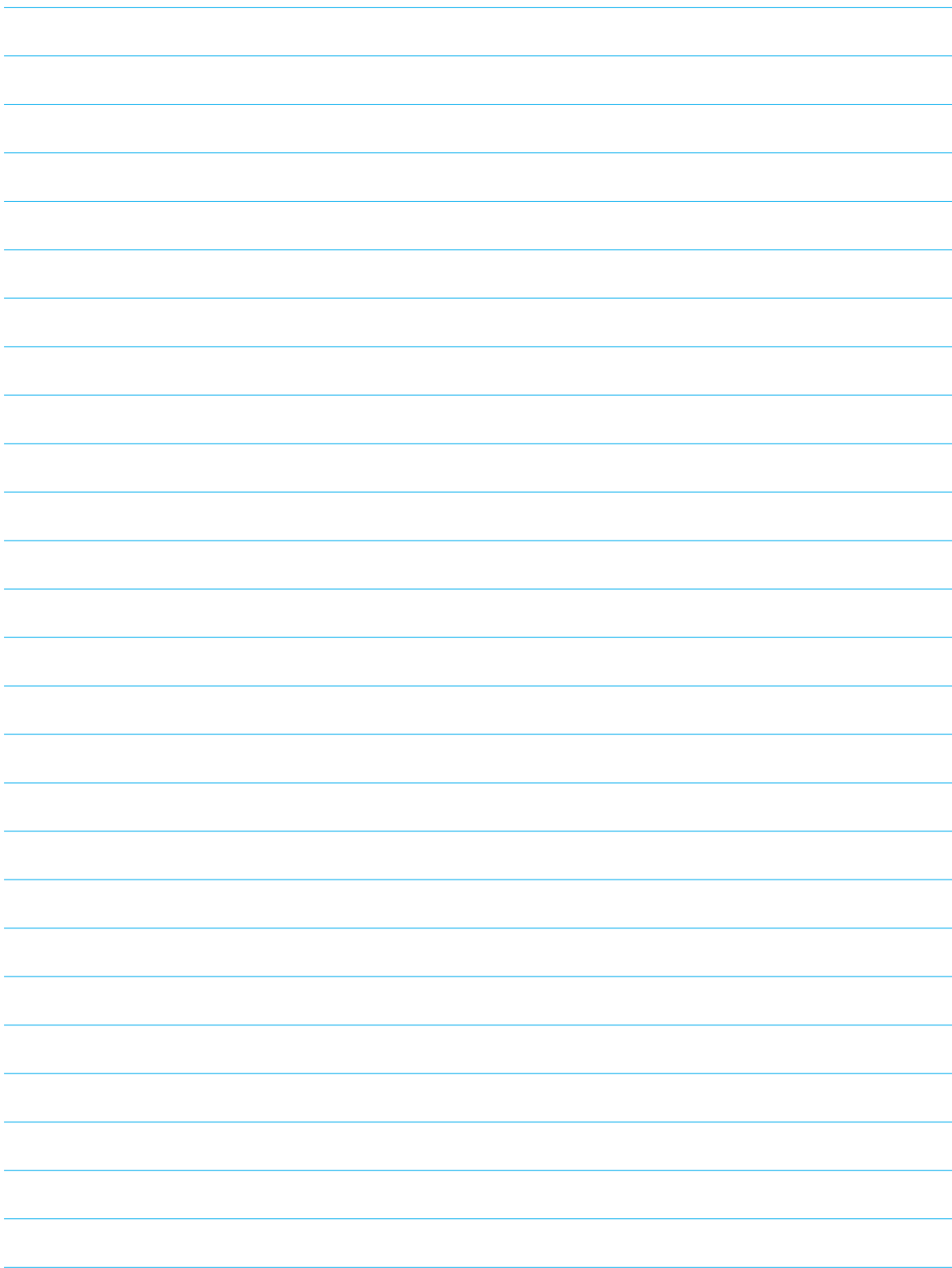
미래는 평신도 시대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는 다양해지고 무서운 속도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은 더욱 엄격해지고 더 완전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와 성도의 가치 기준은 시대가 변화하고 환경이 달라진다 해도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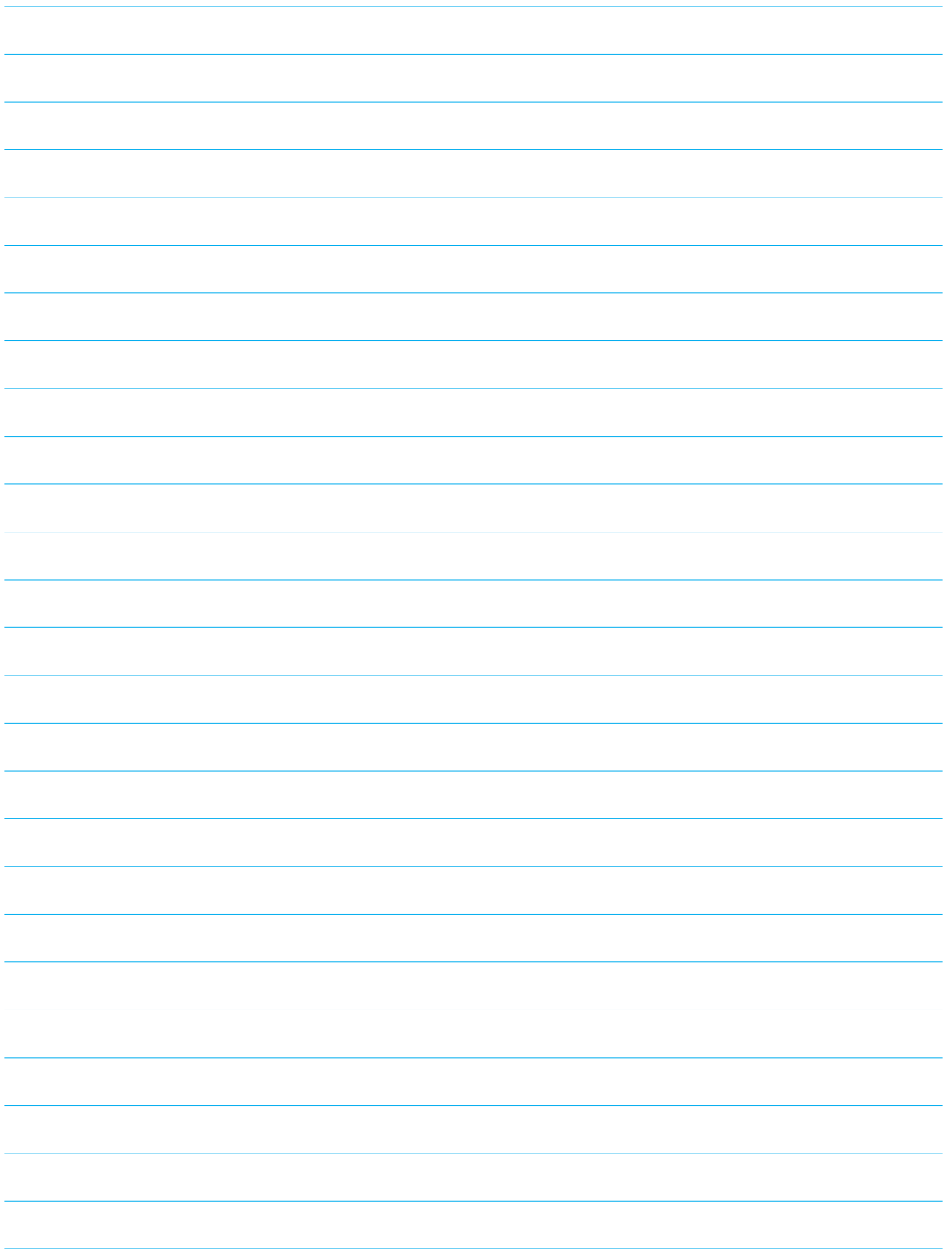
목회자나 평신도들이나 우리 크리스천 모두의 삶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본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영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성도, 역동성과 책임감 있는 평신도의 바른 위치를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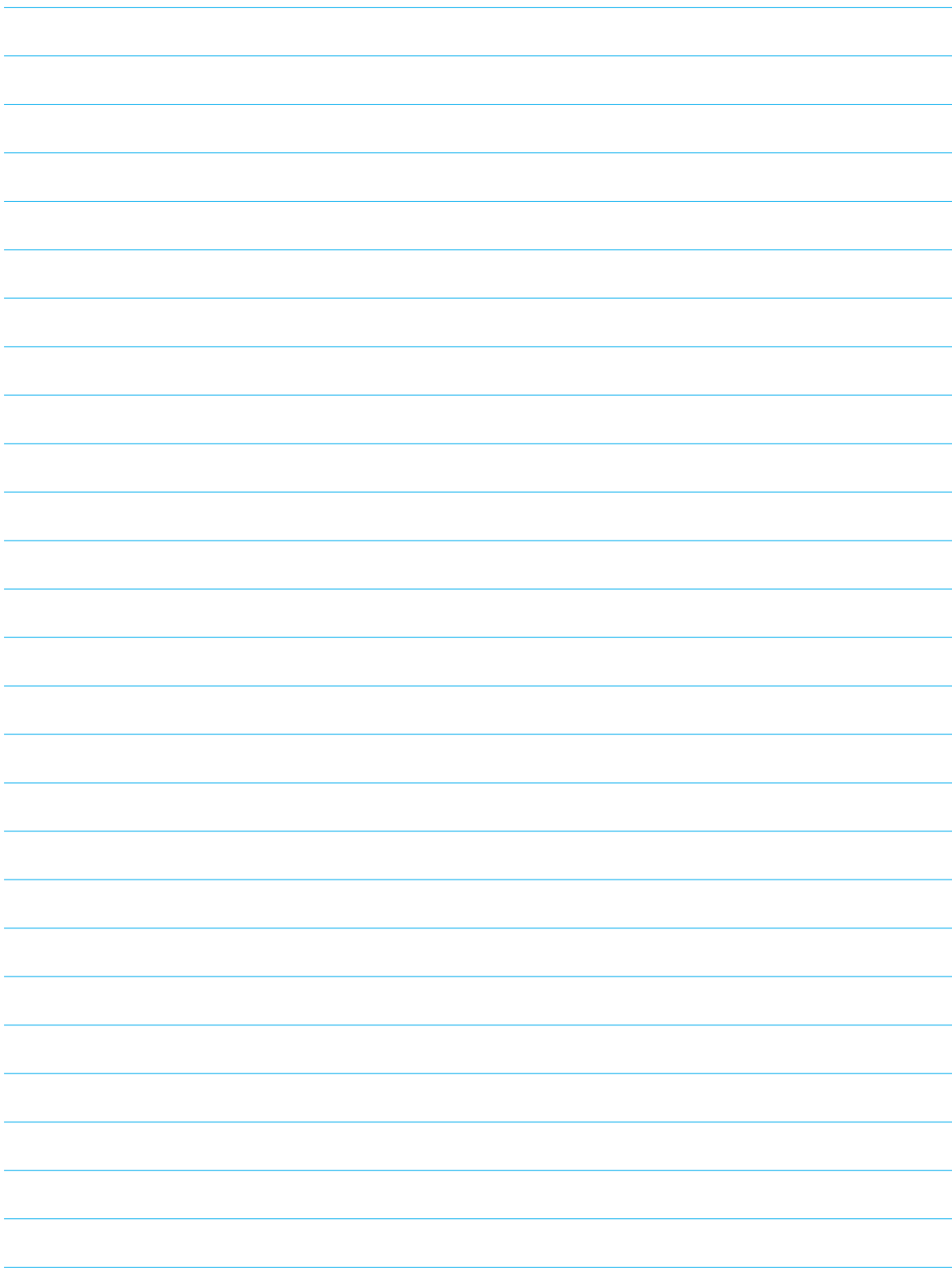
이것이 오늘 이 사회와 교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평신도상을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식사장소 안내

